

광주·전남 역대 최대 현안사업비 국비 반영

광주시 3조2397억원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청신호
전남도 8조2000억원 ...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높여

2023년 정부 예산안 확정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를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지역 현안 사업으로 국비 3조239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3조원 시대를 연 전년도 반영액 3조1057억원보다 940억원(3.0%)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3조2155억원보다도 242억원 많다.

전남도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조2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8조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7조 5131억)보다 9.2% 늘어난 것으로,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올해 최종 국비 확보액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광주시, 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등 대거 반영=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각 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fabrication) 구축(14억원), 공공개발형 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70억원) 등이 반영돼 민선 8기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쬐졌다고 분석했다.

또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563억원), 전자국민 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10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0억원) 사업비 등이 반영됐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 조성(7억원),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20억원), 광주 비엔날레 AI 라키비움 구축(15억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7억5000만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645억원) 등이 포함됐다.

돌봄·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15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127억원), 장륙습지 탄소흡수원 조성(7억원) 등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847억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1084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839억원), 북부 순환도로 개설(31억원)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도 대거 확보했다.

광주시는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도, 미래 핵심 성장동력 확보=전남도는 지난해 말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보한 예산(8조3941억)보다는 3.2% 감소했지만 2년 연속 8조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한데다, 국회 증액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래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첨단 전략 산업과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풍력발전, 그린 수소 등을 뒷받침할 에너지 관련 사업의 경우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등이 반영됐고 전남이 보유한 백산·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백산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전남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등의 예산도 확보됐다.

또 기존 가야·백제·신라 문화권 못지 않은 유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발굴속도가 더디기만 했던 마한 문화권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정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국립 마한역사문화재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사업'도 첫 단추를 끼었다.

그동안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했던 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작은 섬 활성화 사업'도 국비를 확보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SOC 사업의 경우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084억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1523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840억원) ▲남해안(보성-임성리) 철도건설(354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640억원) 등이 반영됐다. SOC 예산의 경우 올해(9065억원)보다 1000억원가량이 줄었지만,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 분담금 예산을 포함할 경우 1조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확정 최종 예산에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1523억원이 반영됐다. 30일 2단계 사업 중 신설 노선인 '고막원~목포(임성)' 구간 공사가 한창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계 대출 연 4.52%
중기 대출 연 4.36%
7월 은행권 금리...상승세 지속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9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52%로 한 달 새 0.2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3년 3월(4.55%)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금은행 기업 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28%포인트 오른 4.12%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3.84%로 0.25%포인트,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36%로 0.30%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기업과 가계대출을 합한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31%포인트 상승한 4.21%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단행되면서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연 2.93%로, 전월보다 0.52%포인트 올랐다. 수신 금리는 2013년 2월(2.94%)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은행들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0.50%포인트)을 예금금리에 바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1.28%포인트로 6월(1.49%)보다 0.21%포인트 축소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7월 평균 예금·대출금리도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37%로 한 달 새 0.19%포인트 올랐고 신용협동조합(3.17%), 상호금융(2.90%), 새마을금고(3.22%)에서도 각 0.36%포인트, 0.50%포인트, 0.37%포인트씩 예금금리가 높아졌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10.53%·0.74%포인트 ↑), 신용협동조합(5.04%·0.24%포인트 ↑), 상호금융(4.46%·0.23%포인트 ↑), 새마을금고(4.79%·0.13%포인트 ↑)에서 모두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려인마을 어린이 "우크라 평화 위해 노래" ▶6면

KIA 황대인 "대인답게 자신있게" ▶18면

건축과 도시 - 기후정의 도시를 꿈꾸며 ▶22면

한경, 광주에서 인쇄 시작

한국경제신문이 8월29일자부터 광주에서 인쇄를 시작합니다.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뉴스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병사 월급 내년 130만원으로 오른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내년에 병사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사실상 1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되고,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저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2023년 국방예산안 병장 100만원+지원금 30만원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사실상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이 된다. 정부는 월급과 내일준비저금을 합한 금액을 병장 기준 2024년 165만원(월급 125만원·지원금 40만원), 2025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월급과 적금 지원금 인상으로 개인 납입금 최대 액수를 내고 내년 12월 전역하

는 인원은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기로 했으며, 전체 3000여동 생활관 가운데 52개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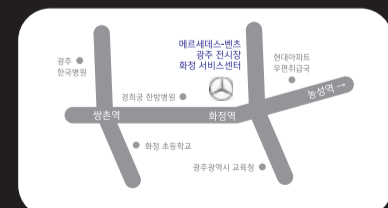
/연합뉴스



EQB

This is for new dimens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행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동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종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평로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4.1(도상: 4.4, 고속도로: 3.8) 1회 충전거리(km) : 313, 공차중량(kg) : 2110, 배터리 용량(kWh) : 66.5
* 문 연부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보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